

## 大學間 協力體制의 強化



建國大 總長 權 寧 贊

요즘의 大學 總·學長職이란 견보기와는 달리 매우 힘겹고 辛勞에 찬 직책이다. 나날이 변화하는 教育環境과 팽창할 대로 팽창한 大學人口 속에서 教育과 研究의 質的 向上策을 걱정하여야 하고 學生指導에 苦心하여야 한다. 大學發展의 앞날을 계획하고 行政의 效率化를 제고하기 위한 組織管理에 힘써야 하고 教授陣의 강화론 비롯한 人事行政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일상적인 임무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主要事項 등에 대하여 指揮하고 統制하고 調整을 해야 한다. 또한 갈수록 조여드는 大學財政의 壓迫 속에서 부족한 財源의 調達과 資源配分의 優先順位론 놓고 선택에 고심해야 한다. “가지 많은 나무 위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식으로 單面化, 複合化된 대학을 다스리고 운영하자니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하루가 먼다고 번번히 개최되는 각종 會議, 教授·職員·學生들과의 對話, 同門·學父母·기타 外部人士와의 面接 등 눈코 뜰 사이가 없다. 어쩌다 교내에서 적고 크고간에 學生示威라도 벌어질 조짐이 보이면 萬事 제쳐놓고 非常態勢下에서 교직원들을 慰勵하여 指導에 임해야 된다. 畚耨과 投石 사이에서 끼어 대학의 權威를 생각하게 되고 弟子들을 달래면서 국가·사회 의 앞날을 심각하게 걱정하게 된다. 여러 가지 당국의 강한 指示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소화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이 지니는 本來의 生理와 窮困 氣에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일 뎨 더욱 그렇다. 많은 葛藤들이 學內에서 꼬리문 불고 일어난다. 참으로 어려운 時代 속의 힘겨운 大學運營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어느 한 대학의 總·學長만의 問題가 아닌 것이다. 정도의 差異는 있을망정 國·公·私立을 막론한 우리나라 대학가에 普遍的인 現象이요 問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찍기 大學의 自治, 學問의 自由는 大學史의 初期段階부터 대학교育의 傳統이 되어 왔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理念이 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대학이 지니는 基本的 屬性이요 特權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어 풀처럼 이 문제가 시원히 解決되지 못하고 있다.

특이키 보전에 解放 직후에서 6.25動亂을 거쳐 1960년쯤까지의 대학들은 初期的 自由放任政策下에 있었다. 大學教育에 대한 經驗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대학들이 兩後竹筍格으로 난립하여 大學人口의 急膨脹과 學事運營의 無秩序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不信을 초래한 바도 있었다. 그 反動으로 19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官主導의 통제와 개혁의 試行錯誤가 되풀이되어 大學教育政策은 관료적 劃一主義로 硬直化된 感이 있고 대학교육의 기본적 屬性인 創意와 自治는 위축되어, 대학은 그 學事運營에 있어 각자의 所信과 責任感보다는 정부 당국의 指示나 命令 속에 안주하는 경향마저 보여 왔다. 이것은 대학의 보다 生動的이고 활기찬 學問研究와 勉學風土 造像이라는 관점에서 다같이 반성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제 4년제 대학만도 111개나 되는 우리나라 각 대학을 政府가 낱알이 配慮하고 指導하는 것은 대학의 規模로 보나 대학마다 特色을 지니는 教育內容과 方法의 專門化와 多樣化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不可能한 것으로 안다. 한편 大學人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의 自律力量도 解放 후 40년의 迂回曲折과 年輪 속에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自負한다. 이제 우리나라 大學行政은 새로운 轉換點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정부는 대학에 대한 高度의 制度的·政策的 업무만을 관장하고 學事運營이나 經營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각 대학마다의 創意와 自律에 맡겨야 할 때가 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83년말에 大學의 自律化政策을 발표하여 대학가는 만할 것도 없고 社會 전체의 큰 關心을 집중시킨 바 있으나,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成果는 크게 돋보이지 못하고 있다. 激動하는 국내의 政治·社會的 與件을 감안할 때 그 이유의 一端을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로는 大學自律性 伸張을 위한 政策企劃의 미흡과 대학의 自律力量에 대한 尙存하는 不信이 아닐까 걱정된다.

대학의 自律性은 이에 대한 大學人의 意志와 實踐能力(力量) 그리고 정부 및 사회의 올바른 認識과 支援간의 函數關係에서 결정되고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大學들은 각자의 特性을 살리면서 自律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大學間의 協力을 필요로 하는 共通의 課題나 共同關心事도 적지 않다.

4년 전에 발족한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民主的·自律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탄생한 組織이다. 대학간의 情報交流, 大學教育과 運營에 대한 專門의 研究, 대학교육의 評價, 대학교육 制度改善을 위한 對政府建議 등 한 대학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問題들을 놓고 대학을 代辯하며 大學과 政府間의 架橋的 役割 등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大學의 발전과 先進化를 위하여 이 機構가 짊어질 任務과 役割은 실로 막중하다.

全國의 會員大學 및 總·學長님들의 적극적 參與와 協力 속에 우리 대학인들 앞에 가르 놓인 수많은 難題와 挑戰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해결하여 大學의 自律性 伸張에 크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